

진안군 마을만들기 주간행사

활동 성과 공유 향후 방향 논의

진안군 마을만들기 1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마을만들기 주간 행사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열렸다.

군은 매년 11월 둘째주에 마을만들기 연간 활동성과의 공유와 향후 방향에 대한 토론 및 의견을 교환하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정체성 강화 및 대내외 홍보를 위해 마을만들기 주간 행사를 진행한다.

올해는 지난 8일~12일까지 5일간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마을리더 및 주민, 활동가, 행정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올해 프로그램은 마을만들기 정책포럼과 한국사이아기의 저자인 이이화

씨의 초청강연, 진안군의회 김남기 의원의 진안군사회복지정책 강연, 마을축제조직위원회와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 간사협의회 등의 결과보고회, 김장한마당, 만나장(진안프리마켓), 고원길 걷기 등의 행사가 진행되었다.

첫째날 진행된 마을만들기 정책포럼에서는 '진안군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안군 농촌관광 현황과 타 지역의 농촌관광 사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진안군 중간지원조직과 마을, 행정의 주체별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둘째날 진행된 '한국사이아기'의 저자인 이이화씨의 초청강연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연구와 고증을 통해 기록이면에 숨겨진 역사 속 민초들의 이야기와 민초들이 어떻게 마을만들기를 해왔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날 오후 시간에는 진안군의회 김남기위원의 '진안군의 사회복지정

책'을 주제로 한 강연이 이어졌다.

셋째날은 마을만들기 관련 핵심 조직인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와 마을축제조직위원회 등의 간담회보고회가 이뤄졌으며, 2017년에 있을 제10회 마을만들기전국대회와 제10회 진안군마을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넷째날에는 진안군 관내 11개 지역 이동센터에 김장김치를 나누기 위한 김장한마당과 재미난 프리마켓 '만나장' 등의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소통하고, 지역사회와 나누면서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날에는 진안고원길 11구간(안천면소재지~용담댐~삼바위~감동마을)을 걸으면서 마을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지역 먹거리를 나누면서 제9회 마을만들기 주간 행사를 마무리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홀로 사는 어르신을 내부모처럼”

무주종합복지관 김장김치 나눔행사

사회복지법인삼동회 무주종합복지관(관장 이영재)에서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무주군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들을 위해 배추 1,000포기를 후원받아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 30명과 사랑나눔 김장김치 행사를 진행했다.

구천동장로교회, 성림관광, 삼성전기 등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의 후원으로 배추 1,000포기 등의 재료를 마련했고, 무주군청 재무과에서 무주읍(구) 소방서 장소를 제공해 사랑나눔 김장김치 행사가 이루어졌으며,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웃음과 훈훈한 정이 넘치는 행사였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은 두 팔을 걷어붙이고 배추절임, 양념준비, 버무리기 등 김장의 전 과정에 사랑과 정성을 듬뿍 쏟아 넣어 담근 김장김치를 직접 어르신들의 집을 방문하여 전달했다.

무주읍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한 모 씨 어르신은 “겨울은 다가오는데 김



장을 어찌할까? 염두가 나지 않아 밤만 동동 구르고 걱정만 하고 있던 참인데... 이렇게 맛있는 김장김치를 보내주어 기나긴 겨울철 반찬걱정 없이 보낼 수 있어 너무 행복하고, 항상 잊지 않고 찾아줘서 고맙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영재 무주종합복지관장은 “독거어르신을 위해 항상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독거어르신들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소남 독거노인생활관리사는 “김장을 할 때는 너무 힘이 들었는데, 행복해 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니 힘 들었던 것은 잊혀졌다. 내년에는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김장 선물을 안겨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민들 하나로 뭉쳤다

군민체육대회 성황리 마쳐

제15회 무주군민체육대회가 지난 12일 무주군민체육센터와 등나무운동장, 반딧불체육관과 적상면생활체육공원, 안성면생활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됐다.

개최를 통해 전 군민 화합의 장을 만들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취지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는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군체육회와 무주군종목별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것으로, 반딧불체육관에서 진행된 개회식에는 황정수 군수와 무주군의 회 유승열 의장을 비롯한 종목별 선수들이 함께 했으며, 태권도 “훈” 공

연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황정수 군수는 “여러분의 땀과 열정과 노력이 우리 무주가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며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고 희망과 신뢰를 쌓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제15회 무주군민체육대회를 통해 뭉쳐진 힘이 2017 무주 WIT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개최로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무주군민체육대회에 참가한 무주읍을 비롯한 6개 읍면 주민 2

천 여 명의 주민들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종목별 경기장에서 테니스와 배구, 족구 등 체육경기와 줄다리기, 단체줄넘기, 한궁, 윷놀이, 계주 등의 민속경기를 치르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주민 김 모 씨(62세)는 “올해는 유난히 덥고 고비도 많아서 농사일하기가 힘들었는데 이렇게 탁 트인 공간에서 함께 어울려 뛰고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돼 좋았다”며 “모두가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내일을 준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나누는사람들’ 재위탁

진안군은 지난 10일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위원장 이근상)를 열고 (사)나누는사람들(이사장 이순태)과 2017년부터 향후 5년간 수탁기간 연장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10년 개관한 뒤 사회복지법인 한기장에서 2013년 12월까지 운영하였으며, 뒤를 이어 (사)나누는사람들이 운영자로 선정되어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복지 전문가와 교육계 관련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는 지난 3년간 장애인복지관 운영실적과 향후 운영계획을 심사하고 2017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현 운영자의 위탁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이날 각계의 전문가들이 꼼꼼하게 현미경 심사를 실시한 평가단은 열약

한 지역 여건속에서도 전북 최초로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꿈엔 꿈꾸는 카페” 개설하고 “찾아가는 복지관”은 영로 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복지증진에 많은 기여한 점과 “보건복지부”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고

밝혔다.

(사)나누는사람들은 전라북도에 기반을 두고 있는 복지법인으로 장애인 영로 장애인에 전문화된 법인으로 진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전주금안노인복지관을 비롯해서 10여개의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장수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진안군 제21회 농업인의 날 행사가 11일 이항로 군수, 박명석 군의장, 군의원, 농업인,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군 진안읍 문예체육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마음 모아 희망농촌 행복담아 미래농업’이란 주제로 진안농업의 희망,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실천을 다짐하며 나눔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기념식에서는 품목단체 우수회원 12명에 대한 군수 표창과 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인단체 육성에 공로가 많은 공직자 3명에 대한 진안군농업인단체협의회장 감사패 수여식이 있었다.

기념식에 이어 오미자, 흑미, 호박 등 재료를 이용한 3색 가래떡 커팅 이벤트로 농업인의 날을 자축했고 부대행사로 우수 농·특

산물, 농업인 창업지원 제품, 진안고원 향토먹거리,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센터 생산 제품, 미생물 제품 등 다양한 농촌지도사업 성과물을 전시하며 농업인과 함께 공유했다.

또한 행사장 주변에서는 한우, 한돈, 흑염소, 인삼, 유제품, 오미자, 사과 등 풍성한 시식코너를 마련하고 오후에는 공무원, 농업직원, 농업인 등의 단체경기와 읍면별 장기자랑 등 화합한마당 잔치가 펼쳐졌다.

진안군농업인단체협의회 순정현 회장은 대회사에서 “어려운 농촌 현실에서 희망을 잃지 말고 자립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농업인단체와 농업관련 기관이 협력과 화합을 통해 미래농업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제21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맞아, ‘제 8회 장수군 농업인 한마음 대회’가 11월 11일에 한누리 전당 산디관에서 농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대회는 장수군 농업인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위원장 이승진)주관으로 FTA 체결에 따른 수입개방 및 쌀값하락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최용득 장수군수와 양성빈 도의원, 유기홍 장수군의 회 의장, 군의원 및 운중읍 장수경찰서장 등 관내 기관사회단체장이 참석해 한 해 동안 수고한 농민들께 위로와 격려를 했다.

또한 군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농업인대상 수상자에게는 과수 부문 장수읍 허태종씨(56세), 축산·임업 부문에 계남면 양석용씨(57세)와 원에·채소·특작 분야에 천천면 이경우씨(60세), 식량작물부문에 산서면 윤인섭씨(56세)가 수상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자전거 자격증 취득해서 안전하게’

무주군 - 한국자전거기술원, 업무협약 체결

무주군은 지난 11일 군청 앞 분수광장에서 사단법인 한국자전거과학기술원(원장 고재용)과 자전거교통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에서 체결된 것으로, 두 기관은 자전거교통안전지도사 자격취득교육 및 교통안전문화정착을 위한 활동, 자전거안전운전자격증 취득교육, 자전거조립정비사 자격취득교육 및 직업전환 지원활동을 하는데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 자전거이용활성화 교육 및 안전생활교육 장소로 덕유산 레저 바이크텔을 지정·활용하는 것에 상호 합

의했다.

황정수 군수는 “한국자전거과학기술원과의 업무협약이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관련 교통안전교육과 체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건강증진과 녹색생활 실천의 기초가 되는 자전거 활용을 확대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해줄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군과 협약을 맺은 한국자전거과학기술원은 자전거기술교육과 이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민간 자격 검정시험기관으로, 자전거조립정비사를 비롯한 관련 자격능력개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 이서면 복지허브화사업 추진

지역자활센터와 협약체결

완주군 이서면사무소(면장 정희정)는 지난 11일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해 완주지역자활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이서면과 이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윤대식), 완주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진왕) 등이 참여했다.

협약은 이서면내 저소득·사회적 취약계층의 역량지원, 지역사회 복지향상 및 노인분야에 전문화된 법인으로 진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전주금안노인복지관을 비롯해서 10여개의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존

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서면내 저소득·사회적 취약계층의 자활지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복지발전을 상호 도모,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서면과 자활센터는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공동으로 도모하면서 지역지원 연계 등 관심사항에 대한 협조체제 구축을 기반으로 상호발전과 우의증진하는 동반성장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서면은 지난 3월 17일부터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해 복지공무원이 직접고 지역내 후원, 자원정보를 공유하면서 확보된 자원에 대하여 상호협력 배분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존

도관리블리스

도단위 농촌지도사업 평가서 장수군농기센터 ‘최우수기관’

장수군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원)는 “2016년 도단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도 농업기술원이 올해 농촌 진흥사업 전반에 걸친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는 “군민이 중심 되는 행복장수”를 만들기 위해 농업기술의 신기술보급과 농업의 6차산업화 기반조성, 농업인 학습단체 조직 활성화, 고품질 과실생산 경쟁력 향상, 농기계대사업 확대 추진, 농산물 가공센터운영 등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했다.

또한, 새로운 소득 작목을 발굴하기 위해 국내육성 신품종 우량인삼 체종포 및 표고버섯 종균센터 운영, 연중 조사료 생산체계 구축 연구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완주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여 백제역사문화탐방 진행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유혜순 센터장)에서는 행복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2일 충남 부여군백제역사문화단지에서 다문화가정 23가정 65명이 함께한 백제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센터에서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다문화가족이 겪게 되는 의사소통의 문제와 갈등을 해소하여 가족관계 향상과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행복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날 탐방은 문화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시작되어, 사비궁, 능사, 위례성, 백제역사문화관, 생활문화 마을 등 백제문화단지를 관람했으며, 고당사에 구드래공원까지 유럽선을 타고 옛 뱃놀이즐거는 시간을 가졌다.

/완주=이종복 기자

무주썰, 과목초서 범죄예방교육

무주경찰서(서장 최성규)는 지난 11일 과목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전문기관 굿네이버스와 협업, 아동대상 성폭력·유괴 등 범죄예방교육에 보드게임을 제작·활용한 것으로, 학생들이 보드게임을 하며 서로에 대한 경계의 권리 인식 및 상호 존중의식을 함양하고 잠재적·직접적 범죄 위험 상황의 인지 및 대처방법을 습득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학생과 교사의 호응을 얻었다.

무주경찰서 최성규 서장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무주군 전체 10개 초등학교에서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한국마사고 전교생 참여 ‘청소년 자원봉사 박람회’

전북도자원봉사센터에서 주최하고 장수군자원봉사종합센터에서 주관하는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 박람회’가 지난 11일 한국마사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장수보건의료원(금연,구장:정신보건), 장수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장수군청소년문화의집, 전라북도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풀잎문화센터, 옥항, 자연환경연수원,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수화통역센터 등 12기관이 참여해 청소년유해환경인식조사, 시각장애체험, 보치아체험, 청각, 언어장애인에 대한 정보제공, 자원봉사센터 안내 등 청소년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체험 활동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장수=고관호 기자